

輿의원 20여명 5일째 집단 탈당

輿 핵분열 시작... 정치권 '빅뱅' 초읽기

정치권의 '빅뱅'이 임박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2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하고 내주 중에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은에 따라 집권 여당의 분당 사태는 물론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은 이번 주말에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주 탈당 대열에 동참할 것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탈당을 결행하는 의원은 3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단 30여명에 이르는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분당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탈당 의원들이 30여명이 넘어선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손쉽게 이뤄지면서 통합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합신당 창당 등과 관련한 정계개편의 주도권은 현역의원 숫자가 많은 열린우리당보다는 탈당이 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한 새로운 원내교섭단체에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경당이 정계개편 논의를 열린우리당보다는 탈당파 의원들이 구성된 원내교섭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럴 경우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또 한차례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는 등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당내 중진들은 탈당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탈당파 주말 동참 결과 따라 30명 넘을수도 全大 차질 불가피... 중진들 탈당 자제 호소

만나 탈당을 적극 만류하고 있다.

일부 중진들은 탈당파 의원들의 집까지 찾아가 "집사있는 대통령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 한나라당과 맞서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탈당하는 것은 함께 죽는 길"이라며 탈당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강철 대통령 정부특보가 국회

의원회관을 돌면서 탈당파 의원들에게 탈당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당내 중진의원들에게 통합과 의원들의 탈당 저지에 나서라는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당내 중진들의 적극적인 탈당 저지 노력에 탈당파 서명까지 했던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의원들은 다시 관망자로 돌아

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모 의원은 "최근 김원기 국회의장이 '탈당이 능사가 아니며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탈당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내 중진들이 탈당파 의원들의 집까지 찾아가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참정연 소속 모 의원은 "탈당파들이 30명 이상 탈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힘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輿 지방의원도 탈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회에서 우리당 소속 시의원 8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 줄줄이 엑스포 지원 여수 방문

대권 주자들이 2012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2012세계박람회 여수준비위원회와 여수상공회의소 초청강연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다.

박 전 대표는 소호요트경기장, 돌산대학교와 박람회 개최 장소인 여수신항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7일에는 박 전 대표의 '맞수'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수를 찾는다. 이 전 시장 역시 박람회 개최지 등 주변 해상을 시찰한 뒤 시민회관에서 '창조적 도전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4일 열린우리당 여수갑지지구당 기초 당원대회에 참석하여 여수를 방문한다. 한편 여수시는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등과도 초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쇠고기 '뺏조각' 다들 한·미 기술 협의 개최

농림부는 오는 7~8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국과 미국 검역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 관련,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미국측이 FTA 체결의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7차 협상을 불과 4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의로 양국이 이른바 '뺏조각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작년 11~12월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분을 모두 뺏조각 검출을 이유로 반송,폐기하자 12월 12일 처음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를 요청해왔다. 이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입 위생조건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협의는 당초 지난달 8~9일 검역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이 내부 사정을 들어 최종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근무 태만자'에 쓰레기 수거 업무

울산시 '인사 실험'... 광주시·전남도 적용 검토

업무시간 상사 눈을 피해 컴퓨터 고스톱을 즐기는 배짱과, 인사 때마다 기피 대상으로 찍혀 혼자 뺏도는 '인공위성'이처럼 '철밥통'으로 불리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쓰레기 제거나 교통량 조사 등을 하는 일용직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

최근 울산광역시가 근무태만자를 일정 기간 하드웨어를 하는 일용직으로 돌렸다 개선했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인사 실험'을 실시하자 광주·전남 지자체가 이를 적용할 움직임이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시 남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부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게으름을 일삼는 '철밥통 공무원'을 골라 보직을 박탈하고 '시정자문단'에 소속시켜 하드웨어를 시키고 있다.

이들은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개선평가를 받으면 일반직 업무에 복귀된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그대로면 계속 남겨뒀다가 더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

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사권자는 충분한 근거없이 직권면직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울산시는 내내내 공무원들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각종 불이익을 쥐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남구, 구례군, 서울 서대문구 등 13개 지자체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 울산시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인사부서 뿐만 아니라 각 실·과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문의가 빠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 실험에 대해 지역공직사회에서는 긴장감과 경계심을 불러넣어 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상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조직장비 때 '살생부'가 될 수 있어 평소 동료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시 설

개인파산 면책기준 강화 바람직하다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업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뚜렷한 이유 없는 상속 포기과 일부 채권자에 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 상습적인 카드강, 과도한 담비와 도박으로 인한 빚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조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갹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제도다. 개인파산은 빚을 갹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려 빚을 탕감해주고 개인회생은 빚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빚을 재조정해주는 것이다.

빚을 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 빚을 갹는 것이 도리다. 빚을 갹기보다 때때로 허는 사회가 정상일 리는 없다. 아무리 개인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생각하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순리다. 제도가 남발되면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7천930명으로 전년에 비해 644% 늘어났고 개인회생 신청자도 4천166명으로 75.5% 증가했다. 계속된 불황으로 빚을 갹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다. 정부가 파산절차와 규정을 크게 완화해 불법·편법파산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정도다.

법원은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사회에 만연된 신용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 빚은 당연히 갹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다.

경영위기 아랑곳 않는 현대차 노조

연이은 노조발(發) 악재로 현대차의 '경영위기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은 데 이어 상용차 공장인 전주공장의 주야간 2교대 근무제 도입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2일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지난달 31일 '주야간 10시간 근무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노사협상안이 1월 3일에 이어 또다시 부결된 것이다.

전주공장은 2교대 근무제의 무산으로 연산 10만대의 버스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5만대만 만들게 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고객들이 하나 둘씩 일본 차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와 수출에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판

매량이 줄었다. 내수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수출은 무려 15.5% 감소했다. 한마디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번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 근무제 반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회사 경영이나 지역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대차 노조가 지금까지 구매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5위 업체 도약'은 물 건너 간 거나 마찬가지다. 최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다. 현대차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백두산 세리머니 정치적 해석 말길"

정부, 중국측에 입장 전달

정부는 중국 장춘(長春)에서 진행중인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땅'이라는 취지의 세리머니를 한 것과 관련, 중국측에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측이 이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한 뒤 "이번 일은 우발적인 일로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측에도 차분히 대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어제와 오늘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 고구려 대항마 '설인귀' 방영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과 맞대결했던 당의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그린 중국의 대형사극이 3일부터 상하이 전파를 탄다.

상하이의 동방전영 채널은 3일부터 대형사극 '설인귀'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설인귀는 고구려를 침범한 당 태종이 연개소문에 패해 위기에 빠졌을때 목숨을 구해내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장수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다.

고구려 패망 후에는 평양성의 안동도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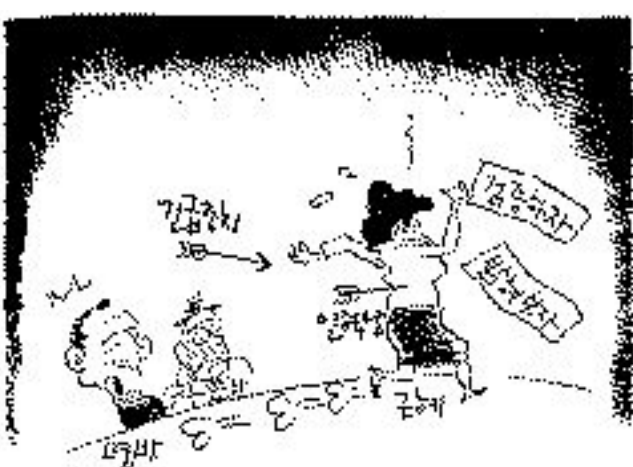
를 이끌며 고구려 유민을 당으로 압송하는 등 고구려 유민 토벌에 앞장서면서 발해를 세운 대조영과도 대결을 펼친다.

설인귀는 일개 평민에서 대장군의 직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점 때문에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이 드라마는 설인귀가 어려서 문무를 익히고 대장군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후 간신의 모함을 받아 3년의 옥살이를 하고 사면되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다루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누가 이런 검증(?) 하겠나?

DJ컨벤션센터 작년 경제효과 2천500억원

565건 전시·컨벤션 100만명 방문

호남권 유일의 전시컨벤션 전문시설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역 컨벤션산업의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열린 45건의 전시·이벤트와 520건의 컨벤션에 100만명 이상이 다녀가 2천5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제광산업전시회, 지역혁신박람회 등 24건의 전시회는 1천154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3천16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돼 광주 컨벤션산업의 가장 큰 축이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재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